

# 濟州島의 田作農耕文化

마쓰야마 도시오(松山利夫)\*

정 광 중\*\* 譯

## 목 차

1. 農耕文化의 背景
2. 濟州島의 常田(밭)과 火田
  - 1) 常田에서의 雜穀栽培
  - 2) 들의 開墾
  - 3) 火田의 經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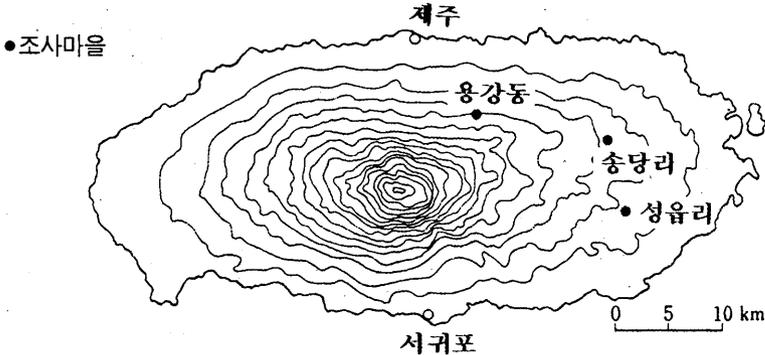
## 1. 農耕文化의 背景

제주도는 벼농사가 거의 행해지지 않는 섬이다(그림 1). 고대에 이 섬은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백제가 멸망한 이후부터 일본과의 교섭을 한층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덴지 천황(天智, 668~671) 때에는 2번이나 사자(使者)를 보내왔다. 그 중 첫 번째는 669년의 일로서 『日本書記』의 덴지 천황 8년 3월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즉, 「三月 己卯 朔己丑에 耽羅, 王子 久麻伎 등을 보내와서 조공(朝貢)하다. 병신(丙申)에 탐라의 왕에게 오곡의 종자를 하사하다」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669년 3월 11일에 탐라(제주도)에서 왕자인 구마기 등이 조공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다. 결국, 왕자 구마기 등은 661(齊明 7)년의 일본 왕래를 시발점으로, 덴지(天智) 8년을 사이에 두고 673(天武 2)년과 675(天武 4)년에 걸쳐 네 번이나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이 해(天智 8) 3월 18일에 오곡의 종자를 하사했다는 것이다(坂本·家永·井上·大野校注, 1965 : 370~371). 여기서 오곡은 구체적으로 『日本書紀』의 一書十一에 쓰여있는 우계모찌노가미(保食神, 역주 :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곡물(음식물)의

\* 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 第一研究部教授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신)의 시체로부터 나온 5종으로 조, 피, 보리, 대두, 콩, 팥(坂本·家永·井上·大野校注, 1967 : 102)을 말하는지, 아니면 『古事記』의 오오게쓰히매(大氣津比賣, 역주 : '古事記'에 등장하는 곡물(음식물)의 신) 신화에 등장하는 벼, 조, 보리, 팥, 대두(倉野·武田, 1958 : 85)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림 1〉 제주도의 지세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덴지천황(天智天皇)이 제주도 사자에게 내린 5곡이 벼를 제외한 조, 피, 보리, 대두, 팥이라는 5종 작물로서 일본에서는 화전경영상 중요작물이라는 점이며, 동시에 시체화생신화가 화전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이다(大林 1973 : 49~51, 坂本·家永·井上·大野, 1967 : 559). 나아가서, 이 화전경영상 중요작물인 종자들이 탐라, 즉 제주도에서 온 사자에게 보냈다고 하는 점이다.

그 후, 제주도의 농업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1275년 원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몽고말의 방목장이 섬 동부에 설치됨으로써(韓, 1975 : 164~165), 결국 제주도에서의 목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화전이 상당히 성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조선실록』 1444(宣德 9)년 6월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臣鄉濟州, 人物鮮少草木茂盛時, 良馬得以蕃息, 自戊戌年以來人多起耕水草漸至不足(中略)且無識之類數多縱火耕田, 若比不禁則地氣焦爛, 無草木, 馬之不蕃明矣」(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1956 : 367)라는 기록이다.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제주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땅을 개간한 결과, 물과 나무들이 모자라고 아울러 주민들은 빈번히 화전을 조성하여 경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대로 방치해 두면, 토지가 척박해져 초목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화전을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5세기 제주도에서는 상전(常田, 역주 : 기존에 평지에 위치하는 밭)과 함께 금지되어야 한다는 화전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다. 작물재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記紀』(역주 : 일본의 역사서인 '古事記'와 '日本書紀'를 줄여서 쓰는 표현)에서 지적하는 피 등의 잡곡과 두류가 중심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의 화전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거의 소멸해 버렸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는 피, 배추, 팔이 주요작물이었으며, 이외에 상품작물로서 잎담배가 재배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소멸직전의 화전은 주요 곡물생산에서 채소원적인 성격의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상전(밭)에서는 제주도의 곡물생산량 중 50% 이상을 점했던 쌀보리(1965년 작부면적 19,344ha)를 중심으로 조, 옥도, 소맥, 메밀 등 곡류와 대두 및 팔이 재배되고 있었던 것이다(표 1, 禹, 1965 : 116~120). 이들 외에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고구마 등 약간의 감자류가 재배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들 주요작물의 재배에서는 윤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泉, 1966 : 83~84). 즉 지역에 따라서 겨울작물에 대한 휴한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 벼(水稻)의 작부면적은 1,028ha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곡류중에서는 겨우 쌀보리, 조, 옥도, 메밀에 이을 정도로 미미했다. 다시 말해 제주도는 비모작 지대인 동시에 잡곡을 위주로 생산하는 농촌인 것이다.

〈표 1〉 제주도 주요 작물의 작부면적

작물명		면적(ha)	10a당 생산량(kg)	총생산량(t)
미곡류	수 도	1,028	189	1,949
	옥 도	3,999	76	3,049
맥 류	쌀보리	19,344	114	21,921
	소 맥	606	59	359
두 류	대 두	3,612	45	1,635
	팔	587	34	201
	기 타	214	29	61
잡 곡	조	17,490	65	11,339
	메 밀	1,990	31	611
	옥수수	45	49	22
서 류	감 자	215	1,000	2,150
	고구마	11,384	1,131	128,760

(禹樂基, 1965 : 120p에 의함)

조엽수림(역주 : 상록활엽수림의 별칭) 생태계(照葉樹林 生態系)에 포함되어 중국의 강남지방(江南地方)과 일본의 북부 큐슈지방(九州地方)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주도는 비수도작(非水稻作)의 섬지방이었다. 이 섬의 낙엽활엽수림은 설선(雪線)에 거의 상응하는 한라산 북사면 700m 이상, 남사면에서는 1,000m 이상의

극히 한정된 산지사면에만 분포할 정도이다. 더욱이 전술한 고도 이상의 사면에서는 소와 말의 방목이 주가 되면서 군데군데 화전이 조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토지 이용의 상황을 보더라도 700~1,000m 이상의 낙엽활엽수림 생태계에서의 생산활동은 제주도의 농업적 기반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즉, 농경을 근간으로 하는 생산활동은 대부분의 조엽수림 생태계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작(非水稻作)의 섬으로 남아있게 된 것은 제일 먼저 관개용수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주요하천은 20개 이상이 되긴 하지만, 항상 하천수를 유지하며 흐르는 것은 3개의 하천 뿐으로 대부분은 지표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해안부근에 이르러서 복류한다. 해안으로부터 500m 내외의 지점에서 용출한 복류수가 해안마을의 주민들에게는 이용되지만, 이 보다 내륙에 위치하는 산촌에서는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용천수를 이용하는데 그치며, 논농사를 지을 정도의 풍부한 물은 거의 얻을 수 없다.

나아가 제주도는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뒤덮여 있어, 충적층은 섬 서부의 극히 한정된 해안에만 분포한다. 아울러 벼의 생육기에 나타나는 강수는(6~9월 평균강수량이 약 200mm(禹, 1965 : 89)로 후쿠오카의 230mm와 큰 차가 없다) 대부분이 복류수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들어가 버린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자연이 벼농사의 정착을 곤란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조엽수림 문화권」(照葉樹林 文化圈)에서는 벼를 도입하기 이전 잡곡과 근채류(根菜類)를 화전에서 재배하는 화전농경문화(火田農耕文化)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비수도작(非水稻作)의 섬, 제주도에는 바로 이 단계에 상응하는 잡곡재배 문화인 기층문화가 상정될 수 있다. 이 기층문화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 대맥, 쌀보리, 피, 메밀을 상전이나 화전에서 재배해 왔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조를 중심으로 하여 축하(祝賀)라든지 풍요(豐饒)에 대한 기원을 하나의 근거로 추정·복원되고 있다(玄, 1980). 뒤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현재 맥류의 작부면적이 가장 많고, 조는 그 다음으로 많으며 작부면적은 전경지의 약 3할에 이른다(禹, 1965 : 120). 더욱이 맥류와 관련되는 농경의식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가령 있다고 해도 극히 빈약하여 결국 보리는 모든 제례에서 제물로 이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하여 조는 술이나 떡 혹은 밥을 만들거나 각종 제례에 이용되는 재료가 된다. 예를 들면, 풍작을 기원하는 동시에 소나 말의 성장을 기원하는 제례(백정)에서는 쌀밥 및 떡과 함께 좁쌀떡과 메밀떡이 제물로서 이용된다. 이 제물은 마을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들(원야)에 운반되어 종자의 발아(發芽)와 성장을 상징하는 콩나물을 곁들인 후 향을 피우며 기원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세경놀이(역주 : 농업을 관장하는 신

에 대한 의례)라는 풍작을 기원하는 무희에서는 조의 재배과정이 모의적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들(원야)에 불을 지르고 잡초를 태워 밭을 기경한 후 조를 파종한다. 이어서 파종한 조밭은 말을 이용하여 잘 밟고, 제초에서 수확 및 탈곡 때까지의 과정이 연출된다고 한다(玄, 1980 : 594~595). 이 세경놀이에서의 조 재배과정은 필자가 조사한 들의 개간방법이나 혹은 상전에서 전통적인 조(粟) 재배방법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의 전작농업에서는 조가 상당히 중요한 존재였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제주도의 기층농경문화(基層農耕文化)는 조를 중심으로 하는 잡곡재배의 농경문화라고 한다(玄, 1980).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추측할 수 있는 기층문화는 「조엽수림문화권」의 한 계보에 연결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3개의 중산간촌을 사례로 제주도의 상전과 화전의 실태를 해명하기로 하겠다.

## 2. 濟州島의 常田(밭)과 火田

### 1) 常田에서의 雜穀栽培

제주도의 주요작물은 곡류에 한정시키자면, 맥류(麥類)와 조(粟) 그리고 육도(陸稻)이다. 이것들과 전통적 작물인 피를 합하여, 본질에서는 제주도 잡곡재배에 대한 전통적인 경작법과 그 기술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한 사례취락으로서, 필자가 농부로부터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었던 북제주군 구좌면 송당리(해발 220m)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해발 140m)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들 두 취락은 모두가 제주도의 동부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현무암으로 뒤덮혀 완사면을 이루고 있다. 두 취락 모두 벼농사는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 송당리를 예로 들면, 1983년 현재 전경지 570ha 중 대두(大豆)의 작부면적이 150ha로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육도는 주요 품종으로 멥쌀 농립 나 1호와 찹쌀을 포함하여 130ha에 달한다. 단, 대두의 작부면적이 육도의 면적을 상회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지도에 의한 것으로서, 평년의 작부체제에서는 송당리도 육도가 많다고 한다. 이외에 메밀이 100ha, 전통작물인 피는 겨우 80ha를 재배하는데 그치고 있다. 작부면적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읍리도 송당리와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두 취락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작물인 고구마나 면화와 같은 난지성(暖地性) 공예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전형적인 비수도작·잡곡재배의 농촌이라 할 수 있다.

(1) '피' 밭의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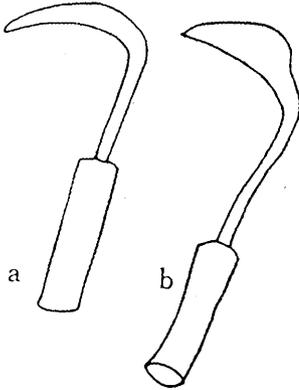
제주도내 산촌의 상전(밭)은 초년도의 작물종류에 의해서 피밭, 조밭, 육도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맥류는 조밭과 육도밭의 2년째 겨울작물로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피밭은 전년도의 여름작물인 조 혹은 육도를 수확한 후 6월 초순경 잡초제거 단계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잡초제거는 강풍이 많은 제주도내의 경지를 에워싸는 돌담안에서 행해지며, 베어낸 잡초는 밭에 그대로 방치하여 녹비로 사용한다. 잡초제거를 끝내면, 즉시 기경작업(起耕作業)으로 이어진다. 밭갈기 작업에는 쟁기를 사용하며 밭의 한쪽 끝에서 경지의 긴변을 따라 행하고, 다른 한쪽 끝에 이르러서는 방향을 바꾸어 반대방향으로 계속 갈아엎게 된다. 이렇게 하여 거의 밭갈기가 끝나가면, 경지의 짧은 변을 따라서 남은 부분을 갈아 엎는다. 이러한 밭갈기에는 적어도 성인 남자 2명이 필요하다. 소에 의한 밭갈기가 끝나면 농가마다 우분(牛糞)이나 돈분(豚糞)과 같이 저장했던 퇴비를 손으로 적당히 뿌린 다음, 피를 산파(散播)한다. 이어서 다시 한 번 기경작업과 동일하게 쟁기로 복토하면, 이것으로 피밭의 기경 및 파종작업은 종료하게 된다. 과거에 피밭의 작업은 대충 이 정도로 그치고, 묘종 이식이나 생육기간 중의 제초 및 시비 등과 관계되는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파울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제주도 전체로서는 1단보(10a)로 환산하면 3두 6홉 정도(畝), 1966 : 83)가 평균 수확량이었다고 한다. 이 두 취락에서도 피의 수확량은 거의 이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극히 낮은 수확량은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거의 관리하지 않는 조방적(粗放的)인 농업양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피의 수확은 10월 초순경으로 '호미' 라고 부르는 도구(그림 2)로 뿌리부근의 줄기를 베어낸다. 이 작업을 '빔질' 이라 부르며, 이 수확작업 가운데서도 특히 흥미있는 것은 일단 베어낸 피를 다발로 묶고 집으로 운반한 후에, 다시 한 번 이삭만을 잘라내는 일이다. 현지에서는 '툷는다' 라고 하는 이 작업은 베어낸 후 며칠을 두지 않고 행해지며 동일하게 호미를 사용한다. 이삭을 잘라내는 작업은 호미의 몸통을 다리(정강이 부분)로 누르고 호미의 날을 몸쪽으로 향하게 한 후, 20~30개 정도되는 한 움큼씩의 피의 줄기와 이삭을 좌우로 날에 갖다대고는 앞쪽으로 힘을 주며 밀어낸다. 잘라낸 이삭은 집안내의 마당에서 2일 정도 태양열로 건조한 후 도리개로 탈곡한다. 이 때 잘라진 줄기부분은 퇴비를 만들거나 온돌 아궁이 혹은 기타 땔감용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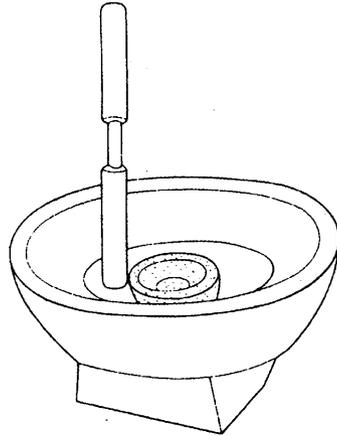
이처럼 밭에서 베어낸 후 재차 이삭만을 따로 잘라내는 작업은 유용하게 쓰이는 퇴비재료를 얻기 위한 수단보다도, 다분히 도리개에 의한 탈곡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결과라 추정된다. 홀태(역주 : 방언으로는 보리클)나 또는 일본의 남서제도(南西諸島)에 보여지는 대나무(竹管, 역주 : 탈곡용 도구로서 짓가락 크기(또는 짓가락 크기의 반 정도)인 두 개의 대나무의 한쪽 끝을 연결하여, 한손으로 벼나 보리의 이삭 부분을 누대 사용함)를 이용한 탈곡에서는 (17세기 말엽 이전 일본에서는 이것과 같은 누끼바시(역주 : 짓가락 모양으로 연결된 탈곡용 도구라 추측됨)에 의한 탈곡방법이 보편적이었으며, 일부지방에서는 에도시대(江戸時代)에도 사용되었다(飯沼・堀尾, 1976 : 131~143)), 굳이 이삭을 잘라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즐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a : 제주도형 잡초 제거용 호미  
b : 본토(반도부)형

〈그림 2〉 호미



(중앙에는 돌절구가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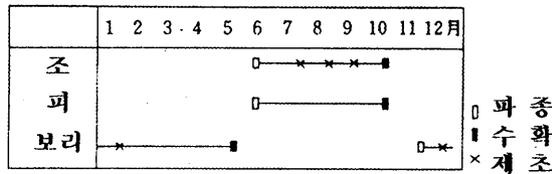
〈그림 3〉 남방에(탈곡·정미용 절구와 공이)

이렇게 해서 도리개로 탈곡한 피는 나무로 만든 남방에(그림 3) 혹은 대형 돌절구라 할 수 있는 연자방아를 이용하여 정미한다. 이 연자방아는 마을의 공동소유로 약 100호에 한 세트의 비율로 갖추어져 있었는데, 각 마을에서는 대략 3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의 수확이 끝나는 초년도의 피밭에서는 보통 겨울작물은 재배하지 않고, 2년째의 여름작물 재배에서는 휴한하던가 혹은 메밀을 재배한다. 여름작물을 휴경한 피밭에서는 2년째의 겨울작물로서 보리를 재배한다. 이때 경운작업은 초년도와 마찬가지로 행해지며, 11월 말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파종한다(그림 4). 그것도 보통은 산파방법(散播方法)이며, 피의 경우는 나중에 서술하듯이 조밭처럼 말에게 경지를 밟게 하는 진압방법(鎮壓方法)은 취해지지 않는다. 보리의 비배관리(肥培管理)도 피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극히 조방적인 노동력에 의존하지만, 제초작업만큼은 파종 1개월 후와 2개월 후에 두 번 행해진다. 수확은 6월경으로 피와 동일하게 일단 뿌리부근에서 베어낸 후, 이삭을 잘라내어 도리개로 탈곡한다. 그러나 보리의 탈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보리 다발을 적당한 돌에 부딪치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이 경우에는 이삭을 잘라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정미작업에 이용된 도구는 피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으나, 연자방아를 사용할 때는 보리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단 물에 담구었다가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2년째 겨울작물의 재배를 마치면, 3년째의 여름작물은 조나 육도를 재배함으로써 재차 초년도의 피의 재배로 되돌아간다(표 2). 이처럼 피밭에서는 3년 3작(이 중 1작은 겨울작물)을 기본으로 하며, 재배관리에서는 극히 조방적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동시에 퇴비 이외에는 시비(施肥)를 하는 일은 없었다.



〈그림 4〉 주요 잡곡의 농사 재배력—표선면 성읍리의 사례—

(2) 조밭의 경영

초년도에 조를 재배하는 조밭의 윤작체계(輪作體系)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우도 2년째에 겨울작물인 보리를 재배하는 3년 3작이었다. 조밭의 기경작업과 파종방법은 피밭과 마찬가지로 소에 의한 밭갈이와 산파방법이 취해진다. 파종과 수확의 시기도 피와 거의 동일하며, 특히 파종단계에서는 6월 초순경 간헐적인 강수를 적절히 이용하여 파종한다. 이 때, 맑은 날을 선택하여 파종하는 것을 ‘마같이’(역주: 장마가 끝난 후에 파종하는 조농사)라 한다. 조밭의 경영에서 주목되는 것은 파종 후에 말을 이용하여 경지를 진압(鎮壓)하는 것과 3회에 걸쳐서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

〈표 2〉 상전(밭)의 윤작체계

유형	1년째		2년째		3년째	
	하기작물	동기작물	하기작물	동기작물	하기작물	동기작물
1	육도	휴한	휴한	보리	대두	휴한
2	조	휴한	휴한	보리	조	휴한
3	피	휴한	메밀	휴한	육도	휴한
4	고구마	휴한	휴한	휴한	메밀	휴한

(泉, 1966년에 의함)

이다.

말에 의한 진압은 조를 파종한 직후에 행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목장에 있는 말 20~30두를 밭돌담 안으로 몰아넣고 성인 남자 2~3명이 말뒤에서 이쪽 저쪽으로 몰고다니며 진압한다. 경지안으로 들어간 말들은 하나의 무리를 이루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말들의 무리를 이용하여 파종직후 밭을 밟게 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일대는 화산회성(火山灰性) 토양이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 쟁기로 복토한 흙이 날리면서 종자도 위로 떠돌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말에 의한 진압을 행하는 것이라 전해진다. 이처럼 종마(種馬)에 의한 진압은 조의 재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명력이 강한 피는 진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아하여 성장한다. 이렇게 진압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조밭에서는 첫 번째의 잡초제거를 행한다. 제초작업은 인력에 의존한다. 이어서 약 20일 후에 두 번째의 제초작업을 행하며, 그후 다시 1개월 후에 세 번째의 제초작업을 행한다.

조의 수확과 탈곡·정미도 다른 잡곡과 다른 점은 없다. 조에는 메조를 주축으로 차조도 재배하지만, 품종만큼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현용준에 의하면(玄, 1980 : 592), 제주도의 조는 메조가 4품종, 차조가 5품종 재배되고 있었다 한다. 따라서 수에서는 맥류(2품종)에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다.

## 2) 들의 開墾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면·리·동의 순서로 작아지고, 리의 하부에는 복수의 자연촌(自然村)과 동(洞)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리(里)라고 칭하는 행정단위는 그 속에 동(洞)을 포함하든 않든 일정한 공간적인 범위를 가지게 되고, 이 안에는 취락이나 밭, 목장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방목지(放牧地)가 되든 개간지(開墾地)가 되든 '들'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포함된다. 이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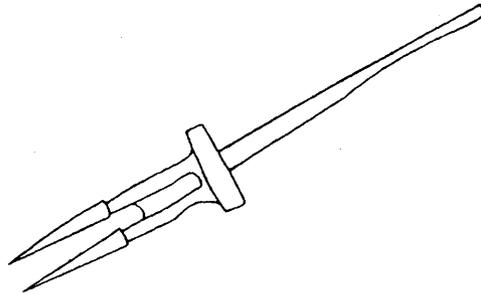
취락(마을)은 돌담으로 에워싸여진 택지(그림 6)의 집합체로 구성되며, 일부는 밭도 포함된다. 이 밭은 주로 배추나 그 외의 소채류(蔬菜類)의 재배에 이용되는 텃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취락에 접해 있는 외연부(外緣部)에는 3년 3작의 윤작을 행하는 상전(밭)이 위치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밭에서는 피·조·맥류와 옥도를 중심으로 주곡(主穀)을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밭을 거의 에워싸는 형태로 리의 영역을 넓게 포함하는 원야(原野)가 들이라고 불리는 공간으로, 여기에는 간혹 공동 목장이 되기도 하고 밭의 개간지가 되기도 한다. 들의 일부에는 암석이 노출되기도 산재한다. 이러한 경작 불능지가 '계(契)' 조직에 의해서 항상 방목지로 사용되는



우선 사면에 직접 불을 넣어(火入) 잡초와 잡목을 태운다. 이어서 '쌍따비' (그림 7) 로 기경한다. 이 쌍따비는 돌이 많은 제주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끝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진 기경도구(起耕道具)로 구좌면이나 성산읍에서 들의 개간에 많이 사용된다(秦, 1979 : 52~53). 처음에 일으켜진 흙덩어리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무망치와 닦은 '곰배'로 정성스럽게 부수어 경지를 조성한다. 이 때 파낸 돌은 경지의 한쪽 구석에 쌓아둔다.

이 조성작업은 계의 구성원의 공동노동으로 행해지며, 개간한 경지는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할된다. 보통 조성된 경지에는 초년도에 메밀, 2년째는 옥도, 3년째는 유채를 재배한다. 경지로 조성된 후 3년간에 걸친 작물의 종류와 재배순서는 이처럼 거의 고정되어 있는 듯 하다. 특히, 조건의 좋은 토지에서는 4년째 이후도 경작을 계속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취락에 근접하는 상전과 마찬가지로 퇴비를 주고 조, 피, 대두 등을 심지만, 좋은 조건의 토지는 극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4년째 이후는 휴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서 들을 개간한 밭은 경지의 조성과정에서 화입(火入)을 동반하지만, 상전과 같은 방식의 경영에서 화전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반도부에서 말하는 산전(山田, 원야를 개간해서 조성된 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림 7〉 제주도의 쌍따비

### 3) 火田의 經營

한라산의 북사면 해발 400m 지점에 위치하는 제주시 용강동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이 지방의 화전은 1920년대 후반에 소멸했다고 한다. 이 무렵, 제주도 전역에 설치된 목책(牧柵, 역주 : 목장용 돌담) 중 상책(上柵, 역주 : 상жат) 상부의 공유지였던 원야 '상жат'이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그 때문에 상жат내에서의 방목과 화전경영이 곤란하게 되었고, 민유지와 방목지를 나누는 하жат성과 상жат성 사이에 새로운 중жат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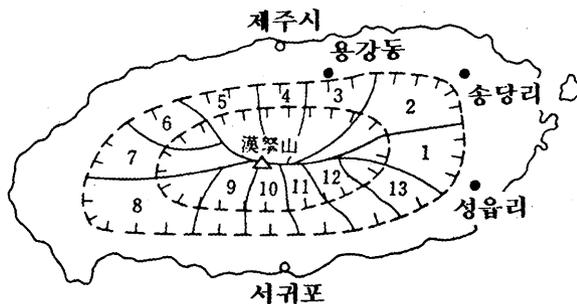
(中柵)이 놓이면서부터 용강동의 화전도 소멸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제주도의 화전은 방목지의 일부에 조성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선 이 방목과 관련된 토지이용의 전체상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한다.

### (1) 所場과 放牧

제주도는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섬 전체의 공유지가 소장(所場)이라 부르는 13개의 선형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8). 그 하한선(下限線)은 해안부의 취락과 상전을 포함하는 민유지와의 경계가 되며, 이 곳에 하жат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고도(高度)를 보면, 섬 남부에서는 해발 160~200m이고, 동부에서는 200~260m 정도이다. 이 고도에서 한라산정(1950m)에 이르는 사이에 방목 가능지(약 1300m 부근까지)의 중간(600m 전후의 고도)지점에 13개의 소장을 횡단하는 형태로 상жат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하жат성에서 상жат성까지를 '하жат'이라 부르고, 상жат성위의 공유지를 '상жат'이라 부르며 각각 구분된 선형의 공간을 소장이라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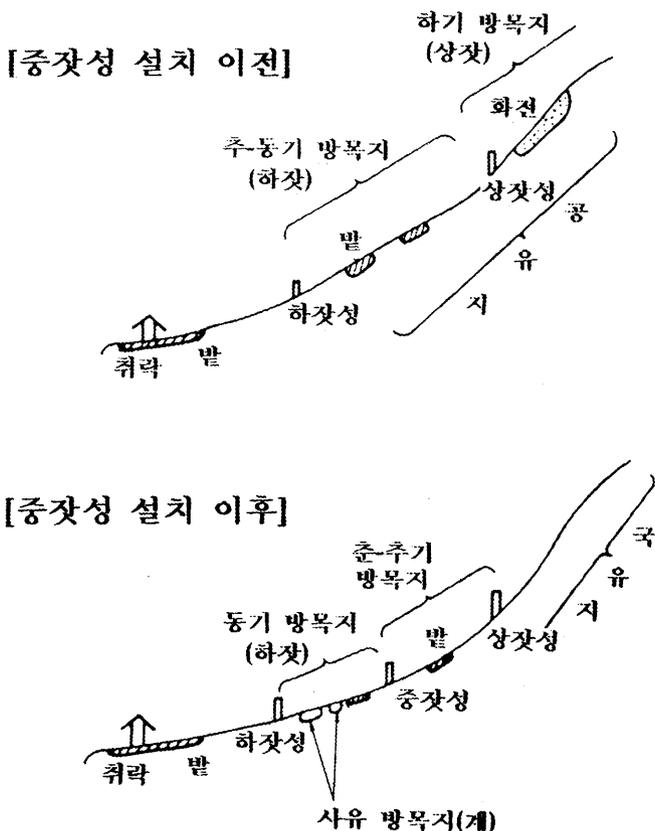
소장내에서는 뒤에 서술하는 것처럼, 고도차를 이용한 방목이 행해지지만, 13개의 소장의 경계는 산비탈이나 하천(예를 들면, 제 2소장과 제 3소장의 경계나 제 3소장과 제 4소장의 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필자가 조사했던 용강동은 제 3소장에 속한다. 앞서 서술한 들은 이 소장안에 포함되며, 소장내에는 상전인 밭이 분포하고 있다. 그 당시 용강동에서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하жат' (하жат성에서 상жат성 사이)내에서 우마를 방목하고 있었다. 이 하жат내에 조성된 밭에서도 우마를 가두어 길렀는데(일종의 수확후의 방목(泉, 1966 : 95~97)), 때때로 망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산록에서 겨울을 보낸 우마들은 봄부터 여름이 끝날 무렵까지 상жат성 위의 '상жат'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우마들은 농번기에는 여러 가정집을 단위로 하는 그룹에 의해 관리



〈그림 8〉 제주도의 소장(所場)

되다가 조밭의 진압 등 필요에 의해서 상전인 밭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나 이 계절을 지나면, 여름이 끝날 무렵 하жат내로 데리고 올 때까지는 특별한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그림 9).

1920년대에 상жат성 위쪽의 상жат내가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종래 하жат이었던 곳은 양분하여 중жат성(해발 300~400m)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하жат성과 중жат성 사이에서, 그리고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중жат성과 상жат성 사이에서 우마를 풀어놓아 방목하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상жат내에서 행해지던 화전조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한편, 새롭게 설치된 중жат성 아래로 개인소유 방목지인 '계'가 나타난다. 앞의 송당리의 들에도 '계'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 중 하나이다.



<그림 9> 하жат내와 상жат내의 토지이용 모식도

(2) 화전의 조성

중갓성이 설치되기 이전 용강동의 화전은 상갓내(해발 600m 이상의 산지사면)에 조성되었다. 당시도 화전의 조성지가 상갓내에 아무 곳이나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관습적으로 조성할 만한 장소는 결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곳은 현재의 용강동 취락으로부터 약 6km 이남에 위치하는 '장우리'라 불리는 곳으로, 해발 700m를 전후한 북향의 산지사면이다. 한라산의 북사면은 이 정도의 고도에 이르면, 식생이 조엽수림에서 온·난대의 낙엽수림으로 이행되어 취락 주변의 상전경지나 하갓내의 상전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생기게 된다. 그 때문인지 용강동에서는 여름작물인 대맥과 조가 화전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단, 사사끼는 제주도에 대맥을 중심으로 팥과 메밀이 합쳐진 화전이 존재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佐佐木, 1972 : 275). 이러한 사실은 필자의 조사에서는 전승자(傳承者)가 없었기 때문에 복원이 곤란했거나 혹은 한라산 남사면의 그 어느쪽이었다고 생각된다.). 소멸직전 용강동에서의 화전의 주요작물은 피와 팥, 배추였다. 또한 메밀은 밭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전에서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지의 조성방법에는 필자의 안내자 역할을 담당해 준 88세의 송씨와 62세의 고씨조차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복원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그 개요를 소개해 둔다. 두사람에 의하면, 화전 조성시의 벌채시기는 계절적으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노동력이 여유가 있는 계절에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장우리'로 나가 관목과 잡초를 호미로 베어낸다고 한다. 관목들은 벌채후 5~6개월간 그대로 방치하여 건조한다. 그 후에 화입(불넣기)이 행해지는데, 이에 앞서 조성해야 할 경지주위의 흙을 제외하고는 폭 1m 정도의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한다. 화입의 장소는 조성지가 비교적 완사면이었던 터라,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반도부에서는 사면의 하부에서 화입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되어 있다(善生, 1976 : 702)). 화입의 시기는 초년도에 피를 재배하려는 경우, 늦가을이나 혹은 이른 봄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조성된 경지에는 우마의 출입을 막기 위해 나무 울타리를 주위에 쳐 놓은 다음 파종단계로 옮긴다. 초년도 작물인 피는 음력 6월 20일에서 24일까지 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음력 10월 10일을 전후하여 수확한다. 당시의 수확방법은 뿌리부근에서 베어낸 후에 이삭만을 미리 잘라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이 피밭의 윤작체계는 초년도에 피를 재배한 후에 팥, 이어서 3년째에는 배추나 팥을 재배하며 4년째부터는 경작을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에서의 화전 소멸은 반도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른 편이

다. 반도부에서는 과거 화전경영의 중심지였던 강원도를 예로 들면, 1974년에서 1976년에 걸쳐 정부에 의한 화전정리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화전은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정리직전의 강원도에서는 화전지(火田地) 25,000ha가 경영되고 있었으며, 그에 종사하는 수만 해도 41,500 세대에 달하고 있었다(江原道, 1976 : 100~105).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제주도의 화전은 지역적으로나 경영형태상으로 보아도 상당히 변방적(邊方的)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반도부에서 경영되던 화전에는 화덕(火德)이라는 형태의 것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전(火田)의 두 종류가 알려지고 있지만, 필자의 조사에 의존하는 한,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분류를 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도부의 화덕(부데기)은 여름 또는 가을에 벌채하여 가을이나 봄에 화입하여 조성된 경지를 말하며, 경작기간은 1~2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화전으로서, 이것은 경작기간이 3~4년을 표준으로 하되, 긴 경우에는 7년 정도로 귀리를 주요작물로 하는 잡곡재배가 행해졌다. 이 경우는 인분(人糞) 등을 퇴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江原道, 1976 : 22~24). 이처럼 반도부의 화전경영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에 전해지는 화전은 상당히 빈약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상전(밭)에서 조와 대맥을 재배하고 빈약하지만 화전을 이용하여 피를 재배해 온 제주도의 화전농업은 동아시아로 연결되는 기층문화(基層文化)와도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가 중국의 강남지방(江南地方)과 일본의 북부 큐슈지방(九州地方)을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만큼, 잡곡문화(雜穀文化)를 기본으로 하는 농경문화의 존재 그 자체가 큰 관심을 갖게 한다.

#### [참고문헌]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1974)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島編』,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張保雄(1981) : 『韓國의 民家研究』, 寶晉齋.

韓東龜(1975) : 『濟州島一三多の慟哭史一』, 國書刊行會.

玄容駿(1980) : 「濟州島の基層文化に關する一考察」國分直一博士古稀記念論集編纂委員會 編 『日本民族文化とその周邊・民族編』, 新日本教育圖書, pp.587~606.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1956) : 『李朝實錄 世宗實錄』, 卷64,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p.367.

- 飯沼二郎·堀尾尙志(1976) : 『農具』, 法政大學出版局.  
泉 靖一(1966) : 『濟州島』,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江原道(1976) : 『火田整理史』, 江原道.  
倉野憲司·武田裕吉校注(1958) : 『古事記 祝詞』, 岩波書店.  
大林太良(1973) : 『稻作の神話』, 弘文堂.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校注(1965) : 『日本書記』 下, 岩波書店.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校注(1967) : 『日本書記』 上, 岩波書店.  
佐佐木高明(1972) : 『日本の焼田—その地域的比較研究—』, 古今書院.  
禹樂基(1965) : 『大韓地誌 1 濟州道』, 韓國地理研究所.  
善生永助(1976) : 『朝鮮の聚落』, 前篇, 景仁文化社.

---

본 내용은 1986년 9월, 日本 古今書院에서 출판된 단행본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松山利夫著)의 일부분(第Ⅲ編 第2章, pp.308~325.)으로 제주도에서 조사된 내용이다. 저자인 마쓰야마 도시오(松山利夫)씨는 일본의 기층문화인 산촌문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의 산촌문화의 원류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내 지역은 물론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하여 거시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자는 먼저 일본내의 <与那國島, 飛驒地方, 白山麓, 南越山地, 秋田山地 등을 조사하고 나서, 대만(臺灣)과 제주도(濟州島)의 산촌문화에 대한 지역성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에서의 구체적인 조사시기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본 책의 출판 연도가 1986년 9월이라는 점과 송당리의 경지면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1983년도의 자료를 활용하는 점으로 보아, 대략 1984~1986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10여 년 이상이 경과한 셈이며, 근래에 들어 제주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1980년대 농촌 사회의 한 단면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더욱이, 국내학자가 아닌 외국인 학자에 의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현지에서의 조사활동과정 등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주도 지역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편집과정에서 다소 불편했던 원본의 사진자료(4매)는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역자, 정광중).